

- 멕시코의 중심으로부터 북부에 걸친 열차 신설과 이달고 (Hidalgo) 지역의 공항 건설,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속도로를 포함한 많은 제반 시설 건축. 마야 유적지에 대한 관광 프로젝트 추진
- 일반 소비자 및 기업들을 위하여, 가솔린 수입을 줄이고, 해당 운반비를 줄이며, 일자리 창출과 가솔린, 디젤, 가스 및 전기 에너지 가격을 줄이기 위한 5 개의 정유 시설 건설
-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독점 방지
- 국가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제품이 있을시 국내산 우선
- 미국과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한 종합적 산업 단지 확장
- 농촌 및 영세 사업자를 우선시하여 투자금 지원
- 지역 은행의 설립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

III. 제도 혁명당 (PRI), 국민 행동당 (PAN), 민주 혁명당 (PRD) 후보들간의 비방 및 선거 과열

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비방(誹謗)의 대상은 제도 혁명당 (PRI)소속의 페냐 니에토로서 여러가지 의혹이 있지만,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필자의 주관에서 몇가지를 집어 하나 하나 집어보고자 한다.



Emilio Azcarraga Jean

첫번째. 에밀리오 아스카라가(Emilio Azcarraga Jean)소유의 방송사 Televisa 와 페냐 니에토(EPN)와의 유착관계(癒着關係)인데,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 2012 년 6 월 28 일자에 의하면, 2009 년부터 Televisa 내부 조직안에 2012 년 페냐 니에토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비밀 조직이 만들어졌으며, 이를 통하여 페냐 니에토의 이름을 방송에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노출시키며, 국민 행동당(PAN) 및 민주 혁명당(PRD)

후보들의 부정적인 면을 계속하여 부각시킨다는 것이다. 또한, 대통령 대선 기간중의 후보 방송 시간대로 페냐 니에토에게 유리한 시간대에 많이 배치시켰다는 것이다.



Monex



Benito Nacif

두번째, 금융 투자 회사 Monex 와 제도 혁명당 (PRI)과의 관계인데, 국민 행동당 (PAN)이 연방 선거 위원회 (IFE)에 고발을 하면서 (증거로 주장의 전자 현금 카드 제출),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는데, 연방 선거 위원회에 의하면, Monex 는 하나의 사기업과 계약을 맺어, 9,924 개의 전자 현금 카드 (monederos electrónicos), 입금된 금액으로 총 70,815,534 페소 (한국돈 대략 71 억정도)를 발행하였으며, 해당 카드는 제도 혁명당 관계자에게 전하여졌다는 것이다. 연방 선거 관련법 (COFIPE,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) 77 조에 의하면, 정당은 일반 영리 사기업으로 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하여 연방 선거 위원회(IFE) 감찰부 (CQD, Comisión de Quejas y Denuncias) 베니토 나시프 (Benito Nacif)는 해당 사항에 관련하여, 금융 감사국 (CNBV, Comisión Nacional de Bancaria y de Valores) 및 국세청 (SAT,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)에 해당 회사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.



Soriana



CTM



문제가 된 물품 구입 현금 카드

세번째. 대형 슈퍼 마켓 체인 Soriana 관련으로, 로페스 오브라도르 지지 선거 연합 단체인 진보 운동 (Movimiento progresista)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, 멕시코주 (Estado